

철저한 준비와 적극성으로 국제기구에 입성하다

- 이름 : 김송정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Mitigation Division
- 직위/직급 : 인턴
- 지원경로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
- 근무기간 : 2022.04.01. - 2022.09.30.

△ 국제기구 지원 자격 요건 갖추기

어릴 적부터 나의 꿈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 시급한 문제를 논하는 국제기구에서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하는 호기심에 여러 유엔기관 모집 공고를 찾아보았고, 그중 반복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석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고급 학위’, ‘OO분야에서 최소 O년의 경험’, ‘(영어 외) 유엔 공식 언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난 아래와 같이 실천하였다.

1.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 습득하기

유엔 공식 언어 중 하나를 먼저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고,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친해지게 된 프랑스인 친구의 영향으로 불어가 조금 더 친숙했던 나는 본격적으로 이 언어를 배우기로 다짐했다. 이에 프랑스로 떠나 현지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프랑스어 실력을 키웠고,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프랑스어 공인 인증 자격증(DALF C1)을 취득하였다.

2. 관심 분야의 경력 쌓기

대학교에서 환경법 수업을 들으며, 기후 변화 문제는 결코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협력이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환경을 나의 관심 분야로 정했다. 그리고 유관 경험을 쌓기 위해 국내 환경 NGO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다수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 환경 인식 캠페인 및 행사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기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다시금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3. 석사학위 취득하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국제협력’ 이 가진 중요성을 깨달은 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이에 국내 대학원에서 ‘국제개발 협력’ 을 전공하며 전공지식을 쌓고, 연구 조교로 일하며 한국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더 쌓았다.

4. 적극적인 태도

위의 요건 이외에도 국제기구 지원자가 갖추면 좋을 덕목으로 ‘적극성’ 을 추천한다. 나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고 다짐한 후, 불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유학 길에 올랐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에 찾아가 유엔 진출 방법에 관해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대학원 재학 시절에는 국제기구 진출 특강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인연을 맺게 된 선배님을 해외로 직접 찾아뵙고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 자문했다. 실제로 이때 선배님께 들은 조언은 국제기구 지원 준비과정과 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인턴십을 하게 되었지만, 방학에 독일 본(Bonn)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동료들을 만나 교류하고 유엔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으며, 인턴십을 비대면으로만 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값진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나의 국제기구 지원 준비과정

아래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선배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내가 국제기구 지원을 준비했던 과정이다.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있었기에 유엔 인턴십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배님의 경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준비과정 또한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공식 정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공식 정보가 주기적으로 올라오므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나의 경우에는 인사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두고 인턴십 공고를 매

일 확인하였다. 홈페이지를 매일 접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방향성, 최근 활동들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은 훗날 면접에서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추가로 인턴십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나 인턴을 모집하는 부서의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직무의 인턴십 공고가 올라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서류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

2. 직무 기술서 저장, 정독하기

영어로 Job Description 혹은 Description of Assignment라 불리는 직무 기술서는 해당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답지와도 같다. 이는 해당 인턴십의 목적과 인턴이 하게 될 역할이나 책임, 맡게 될 직무, 자격 요건, 인턴십 기간, 특이사항 등 인턴 지원 시뿐만 아니라 인턴을 끝마칠 때까지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UNFCCC 홈페이지상에서는 지원 마감 기한이 지난 인턴십 공고는 더는 조회할 수 없다. 이에 관심 있는 인턴십 공고 본문을 저장해두기를 권장한다. 나의 경우,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달 후에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직무 기술서를 미리 저장해둔 덕에 홈페이지 상에서 인턴십 공고가 삭제되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3. 나의 경험/경력과 직무를 최대한 연관시키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해당 직무 기술서가 포함하는 키워드와 내 경험 및 경력을 연관 지어서 내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인턴에게 자료조사, 자료수집 및 취합, 문서 편집 작업, 회의록 작성, 회의 및 행사 지원 등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난 자기소개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는 지난 직무에서 OO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OO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 및 취합해 보고서 작성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여러 국내외 행사 및 회의를 기획/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당 기관과 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나는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관 부대 행사를 기획/진행 보조한 경험을 언급하며 행사 주최 기관과 나의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 면접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를 들은 면접관은 반색하며 “우리가 주최한 COP26 행사에 당신이 참여했었다고요?”

그때의 경험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래요?” 라며 내 경험에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4.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답변 준비하기

면접 질문은 주로 내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안에서 출제된다. 면접 요청 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하며,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그에 맞는 답변을 적어보는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직무 기술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들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연결 지어 보며 각 예상 질문에 걸맞은 나만의 이야기를 미리 만들어둔다면 실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둔 이야기 목록에서 하나를 꺼내서 질문에 맞게 각색해 대답을 할 수 있다. 나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답변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면 훨씬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내가 다른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인턴십이 끝나고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여 UNDP 인턴십에도 합격했다.)

5. 편안한 자세,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기

이 인턴십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유엔기관과의 면접은 ‘나’ 라는 개인의 역량이 나 실력을 ‘평가’ 받는 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이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인가?’ 를 보는 시간과 같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나의 면접은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나는 면접관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웃으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할 만한 ‘동료’ 라는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인턴십을 하며 느낀 점

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주관(host)하는 NDC Partnership 아프리카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팀 (Africa and MENA region team) 소속 인턴으로 활동하였다. NDC 파트너십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목표 달성과 개도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범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

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포함 200개 이상의 회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연합으로 성장했다. 이 연합의 수혜국은 총 67개국(2022년 11월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및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총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는 이 중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자를 사수로 만나 튀니지,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모로코와 같은 불어권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촉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했다. 특정 국가가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NDC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제기구 집단에 회람해 국가별 요청 사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연결해주고 회의를 통해 정부 및 국제기구의 요구와 방향성을 조율해가며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사수가 담당하는 여러 개도국 정부 기관과의 회의에 참여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바탕으로 국가 서류(country briefs)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지원 기관과 수혜국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자 영어와 불어로 기관 소개 자료, 수혜국의 개발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분석자료를 만들어 회람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사수를 도와서 국가별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흐름을 문서로 만들어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였다.

나는 이 인턴십을 통해 유엔의 체계와 업무 수행 방식을 몸소 체험하였고, 유엔사무국 특성과 정부 간 국제 기후 협약에 도달하는 방법, 개발과 기후 행동의 연관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의와 전망, 파리 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었다. 또한 개도국, 국제기구, 공여국, 선진국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후 문제 해결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나도 동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가 훗날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 줄 값진 경험이었다.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누구든지 저처럼 적극성을 갖고 국제기구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면 국제기구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가 국제기구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준

비해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국제기구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턴십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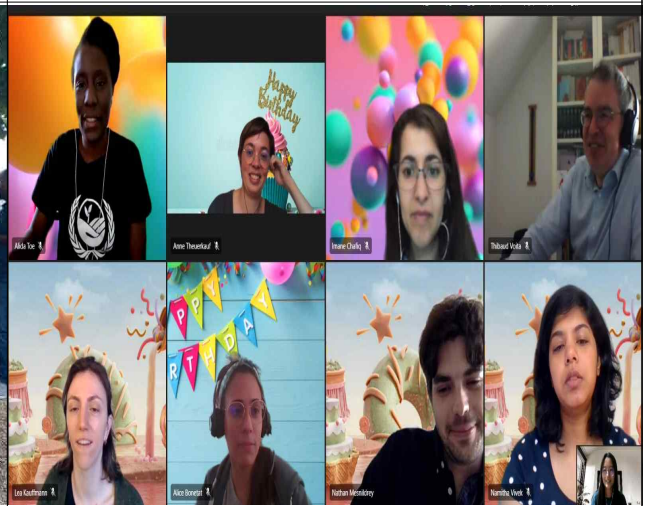
동료들과의 첫 만남



동료들과의 주말 나들이



동료들과의 회식



동료들과의 비대면 생일파티